

히시

그렇지만 무엇도 허락되지 않는 이 삶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공포와 증오뿐이었을까. 내가 물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마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물을 때.

몇 시간이고 버스를 타고 달리면서, 국경을 넘으면서, 총을 든 사람들 앞에 짐을 풀면서, 어쩐지 눈을 마주칠 수 없어서 발끝만 보면서.

히시, 나는 운명이라는 말을 오래 생각해왔어. 그런 게 있다면. 이 차가운 밤도 운명의 일부겠지. 안 그래? 초록 눈동자는 어둡고 축축한 동굴처럼 빛난다. 너를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하게 될까봐 겁나.

네 피부는 뱀 같고 네 눈은 맹수 같고 네 손은 나뭇가지 같아. 네가 말했을 때. 아니야. 나는 조금씩 죽고 있는 사람일 뿐이야. 내 심장은 아직 뜨겁게 뛰고 있어. 아주 작은 빛. 나는 네가 어깨에 뻗 기다란 총신의 끝이 가리키는 곳을 본다.

그렇지만 이 두근거림이 단지 공포일 뿐일까. 나는 물을 수 없어 어둠에 쫓힌 검은 것을 본다. 알아? 알아. 멀리 빛나는 붉은 점은 무엇일까, 저기 뭐가 있어? 가본 적 있어? 그래. 마을의 입구야.

부서질 것처럼 기울어진 네 등을 보면서 나는 언제까지 이 밤이 계속될까, 생각했어. 곧 너는 마을로 돌아갈 테고 나는 버스를 타고 떠나겠지. 따가운 풀 위에 누우면 이끼 냄새가 났어. 네 어깨가 내 어깨를 스칠 때 온몸의 털이 곤두섰어. 간지럽고 아팠어. 왜일까.

어쩌면 히시, 너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 바보 같아서 말할 수 없었지만. 네가 내 허리를 감싸며 나를 내려다볼 때. 서늘한 두 눈 속 어둠이 내 얼굴 위로 쏟아질 때. 모든 질문과 대답이 사라질 때.

울었어. 내 안에서 온 세계가 얼어붙었어. 너를 올려다볼 때. 단지 작고 작은 빛. 두 손에 돌을 쥐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어. 무서워. 무서워. 숨 칠 수 있게 끌어올려줘.

나는 오래도록 사랑에 대해 생각해왔어, 히시. 그렇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를 데려가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온도와 점정일 뿐이야?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가까스로 기어 물에 다다를 때.

너는 웃으며 서 있었지. 내 이마에 충구를 겨눈 채.

단 한 마디, 가방 내놔. 그 단 한 마디가 전부였지.

∞

그렇지만 무엇도 예감할 수 없는 이 심연 속에서 내가 네게 준 건 단지 그림자뿐이었을까. 그럴까. 너의 마음은 전부 가짜였을까. 내가 끝없이 속으로 물을 때.

혼자. 푸른 물. 마침표 다음 첫 문장. 눈 내리는 사막. 미납 연체. 흉터. 달력. 거울. 산호. 빈 유리병. 혼자 푸른 물속을 떠돌아. 첫 문장 뒤에 찍힌 마침표. 거울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사막. 사막을 지나서 안데스. 바닷가에서 주운 산호. 달력에 표시된 귀국날짜. 정말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묻곤 해. 그래도 네 눈. 초록. 빛. 아주 작은 숨소리. 돌려줄 수 없는 마음과 돌려받을 수 없는 마음. 어깨에는 화상 자국. 콜라를 나눠 마시던 벤치. 빈병을 불어 내던 고동소리. 이제 혼자.

알 수 없어 떠돌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알 수 없어졌어. 봐, 내 눈을. 내 눈이 뿜어내는 어두운 빛을, 봐. 너는 잠이 오지 않는 밤 뒤척이다 문득 떠올릴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것을 영원히 부숴버렸다는 고통에 내내 뒤척이게 될 거야. 히시.

You can never go home again

다음은 수녀스님이 꾸고 있는 꿈이다 신딸이 신엄마에게 큰절을 한다 대단해요 하느님은 백인이었다 부처님도 백인이었다 하지만 아직 하느님과 부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다 분명히 곧 만날 것이다 다음은 꿈에서 깬 수녀스님이 무얼 하는지 묘사하고 그녀의 생각을 서술한 글이다 수녀스님은 잠에서 깨어 꿈에서 본 것들을 정리하게 되었다 내가 꿈에서 저승에 갔구나 엄마를 봤네 다음은 희정 씨가 왜 수녀스님인지 소개하는 글이다 희정 씨는 수녀면서 점집을 겸한 작은 절의 스님이었다 점집절은 신촌 골목에 있었고 수도원은 마포에 있었다 그녀는 이중생활을 했다 희정은 어려서부터 수녀가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생 때 신이 들려서 신내림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수녀가 꼭 되고 싶었다 신엄마는 불교 공부와 사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끔 점도 봐주면서 살면 전업 무당을 하지 않고 일반인 행세를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묘사와 서술이다 수녀스님은 화가 났다 다음은 수녀스님이 꾸고 있는 꿈이다 신딸은 토마스와 법정의 생김새를 안다 자살한 자들의 지옥에는 왕동백나무가 분명히 있다 다음은 잠에서 깬 수녀스님의 생각을 서술한 글이다 엄마를 봤네 다음은 수녀스님이 꾸고 있는 꿈이다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가자 신엄마가 가자고 한다 백인들을 만나러 가자고요? 신딸의 물음에 신엄마가 대꾸하지 않는다 불안하네 둘은 움직인다 신엄마가 신딸의 손을 잡는다 이제 그들과 아주 가까워 그들이 가까이 있나요? 신딸의 물음에 신엄마가 고개를 끄덕인다 행복하다 다음은 수녀스님의 미래를 소개하는 글이다 희정은 믿음이 강할 때는 가끔씩만 믿지 못할 것이며 분노가 치밀 때는 가끔씩만 믿을 것이다 다음은 믿음이 강할 때의 불신 속에서 희정이 하는 행동이다 희정은 잠을 잔다 다음은 분노가 치밀 때의 믿음 속에서 그녀가 하는 행동이다 그녀는 눈을 감는다 다음은 눈을 감은 여자의 생각이다 믿고 있다 다음은 눈을 감은 여자의 생각이다 눈을 뜰까 다음은 수녀스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회곡을 요약한 것이다 막이 오르면 수녀스님의 일상이다 막이 내렸다가 다시 오르면 수녀스님의 49재다 우리 스님을 성당에 묻다니 불자들이 화가났다 비구니들이 승무를 춘다 막이 내렸다가 다시 오르면 수녀스님의 꿈이다 신엄마가 신딸에게 이제 가자고 한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다음은 수녀스님의 생각을 서술한 글이다 회곡을 썼네 여기까지 쓴 다음 나는 희정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그곳에서 그녀를 꺼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 자야겠다

콘크리트

무엇을 꺼낼 수 있을까

그날의 일로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나는 통과할 수 없을 것 같다

차갑게 언 신발을 신고 있어서

걸을 수 없을 것 같다

유령이면서

사물과 사람을 통과하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혼자 넘어지고 혼자 텅져 나가면서

그렇게라도 가보려고 했는데

활짝 열린 통로 입구에서

희박한 몸의 모서리라도 맞춰 보려 했는데

단단한 장갑 안에 손을 끼우면

내 손도 단단해질 수 있을까

단단한 손으로는

깨뜨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깨뜨릴 수 있게 되겠지

수시로 떠오르는 얼굴 같은 것

불현듯 찾아오는 목소리 같은 것

완전해져 가는 변명들을 깨뜨릴 수 있겠지

전구는 얇고 전구는 쉽게 뜨거워지고

전구는 언제든 조각날 수 있다 언제든 짝, 하고 터질 수 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조각들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다

통과하지 못한다면 관통하면서

언 발로 뛰어다니다 깨진 발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